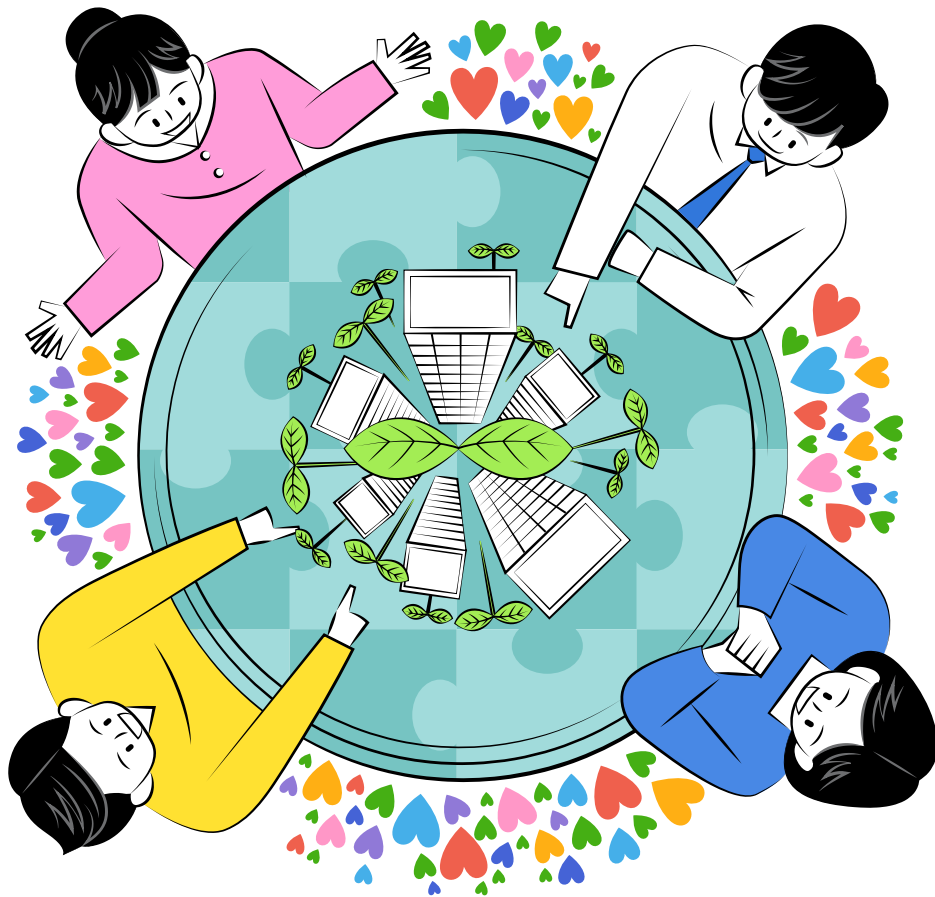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율주행 AI 실험용 차량이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추진과정

-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의 조윤주 주무관은 S사의 실험용 차량이 자기인증* 요건에 맞지 않아 일반도로 실험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으며
- 관련법 내용을 두루 공부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에 건의하여 소관부처에서 안전한 차량이라는 증명 과정을 거쳐, 자기인증 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자기인증이란 자동차의 형상, 규격 및 성능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를 말함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용 인공지능(AI) 차량 자기인증 면제('18년 12월) 및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로 자율주행버스가 서울 월드컵북로 1.1km 구간을 운행하여 자율주행 기술고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함
국토교통부, 실험용 차량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19년 6월)

효과

해당 기업은 연 1,000억 이상의 투자유치,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 300여명 일자리 창출, 150여개의 자율주행 관련 산업군의 활성화 기대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신기술플랫폼 구축



Q.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추진과정

- 대구광역시 신기술심사과·감사관실의 장성훈, 김진웅, 전영진 주무관은 힘들게 개발한 신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어려움을 듣고
- 신기술의 초기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타 시도 사례조사, 건설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전국 최초 신기술플랫폼*을 구축함

* 9개 정부 부처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신기술과 지역특허를 손쉽게 검색 가능



개선

신기술플랫폼 구축으로 신기술 홍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신기술 활용 심의로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활용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도입하였음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19년 9월 예정)

효과

신기술의 홍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도입을 통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진입에 기여

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사가 되었습니다!!



Q.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추진과정

- 경기도 남양주시 대중교통과의 피재성 주무관, 노현호 주무관은 취업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택시 운전사 취업을 위해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마련하고
- 운송사업자, 어플공급자와 전국 최초로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상회보 등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사업 시행함

* 고요한 택시 :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태블릿을 택시 앞자리와 뒷자리에 배치하여 태블릿 키보드와 터치패드 등을 이용하여 승객과 기사 상호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개선

‘고요한택시’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청각장애인 7명이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음 또 서울특별시, 경주시에도 해당 서비스가 확산되어 현재까지 모두 13명의 청각장애인이 일자리를 찾았으며, 최근 두 번의 취업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청각장애인이 고용될 것으로 기대됨

경기도 남양주시,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업무처리 지침 수립 및 운영 협약 체결('18년 12월)

효과

청각장애인은 직업 선택의 기회 확대, 택시회사는 구인난 해소, 시민·승객들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편견 해소

서해5도 어장 245km² (여의도 면적 84배)

확장 및 야간조업

55년만에 부활



Q.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추진과정

- 인천광역시 옹진군 수산과의 박순재 주무관은 서해5도 해역은 군사훈련 등으로 어장이 제한되고 연간 150여일만 조업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을 알게 되어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건의했던 노력을 이어, 해양수산부장관(2차례), 여야 국회의원 방문시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조업구역 연장 및 야간조업의 허용을 이끌어냄



개선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19년 3월)하여 서해5도 어장 면적을 현행 1,610km²에서 1,855km²로 245km²(여의도 면적 84배) 확장 및 야간조업 1시간 연장(일출 前 30분/일몰 後 30분)되었음

효과

연간 4,000톤의 어획량과 300억원의 주민 소득이 각각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주인들도 이제 걸어서 목욕탕 갑니다!



Q.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추진과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의 서영미 주무관은 월평마을 인근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중목욕탕을 건립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듣고
- 시행령 개정안과 주민탄원서(343명)를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였음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을 지자체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을 개정('18년 12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 조례를 제정하여 목욕장이 건립중임

효과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소외받는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불편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